

사회

사회·과학 선택과목 2개로 축소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 내신 연계 학교 공부 더 충실해야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A형·B형의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지만, 주요 과목인 국·영·수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사회·과학의 선택과목은 최대 2과목으로 지금보다 1과목이 또 줄어 국영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 입시,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이 조언한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A형·B형의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지만, 주요 과목인 국·영·수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사회·과학의 선택과목은 최대 2과목으로 지금보다 1과목이 또 줄어 국영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 입시,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이 조언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상대평가로 수능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입시전문가들이 조언한다. '교과서 지식' 중심 출제=현행 수능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을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명칭을 바꾼 것은 학교 내신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학교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능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학교 내신 시험을 더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 또, 현행 수능이 종합적인 사고력과 탐구력 중심의 시험이었다면 앞으로 수능 시험은 교과목 중심의 지식,

2014 수능 영역별 문항수 및 시험시간

Table with 5 columns: 교시, 영역, 문항수, 시험시간(분), 배점, 비고. Rows include 국어, 수학, 영어, 탐구(특기), 제2외국어/한문.

이해력 중심의 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학원가는 분석한다. <대학 수능 활용 방식 '주목'>=수능에서 국어·영어·수학 과목이 수능 시험으로 치러지더라도 입시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학원가의 지적이다. 대학들이 달라진 수능시험을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

진다고 판단되면 대학에서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시전략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입시학원에서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중전보다 수능의 변별력,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선발 방법에서 대학별 고사가 중심이 되는 수시 모집의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a 7-day outlook.



21일 인화학교 출신 학생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헬더' 오픈 행사에서 공지역 작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저도 훌륭한 바리스타가 될래요”

인화학교 졸업생들 커피전문점 오픈...공지역 작가도 참석. “저도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행복해요. 아직은 서툴지만 훌륭한 바리스타가 될래요.”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마라도동 광주도시철도공사 1층 로비에 인화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축이 된 커피전문점 '카페헬더'가 문을 열었다. '출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 카페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인화학교를 졸업 후 정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그룸헬더'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8월 공지역 작가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열린 '행복의 도가니' 콘서트에서 마련된 3500만 원의 자부금이 바탕이 됐다. 소설 도가니를 쓴 공지역 작가는 어려움을 딛고 사회를 향해 첫 걸음을 뗀 인화학교 학생을 한 명씩 포용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 작가는 “이상하게도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면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날 수 있는데, 나에게도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역 고교생 '야자' 규제 완화

시교육청, 방학중에 3학년 밤 10시까지 허용. 2학년 겨울방학 보충수업 140시간으로 늘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2,3년 학생의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고교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따르면 3학년의 경우 방학 중 희망자에 한해 학교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자율학습을 오후 6시 이전 종료하도록 했었다. 또 1, 2학년의 경우 방학중 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희망자는 도서관에서 최대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했다. 특히 2학년의 겨울 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현재 120시간에서 140시간으로 늘렸다. 이는 학습시간 부족 등에 따른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기중 자율학습은 밤 10시 이전에 모두 끝내고 1, 2학년은 토요일과 일요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막아달라는 요청 못지않게 공부를 더 시켜달라는 학부모와 학생 민원도 많다”며 “3학년 중심으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와 해당 교사 징계조치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고교·공립 유치원 내년 수업료·입학금 동결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등의 수업료,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육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기침체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물가안정 등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업료 등의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째다. 고교 수업료는 일반계고가 연간 134만8800원, 전문계고는 130만9200원이며, 공립유치원은 25만9200원(병설)과 28만5600원(단설)이다. 입학금은 고교가 1만7200원, 유치원은 3400원이다. 중학생이 부담하는 학교운영비는 예산으로 전액 지원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수업료 동결방향을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임부부에겐 '반값 한약' 광주 동구, 한의사협회와 지원 협약

과격적인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있는 광주 동구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반값 한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는 21일 남임부부의 임신을 돕는 한의학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서비스를 통해 남임 부부들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 속뜸, 침 시술 등을 이용할 때 50%의 할인 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을 낳은 산모도 산후조리 보약을 50% 산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동구 주민으로 결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부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을 받아 동구 한의사 협회 지정 8개 한의원에 방문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고속, 내년부터 목포~동대구~구미노선 운행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목포~동대구~구미 노선을 개통, 운행한다. 금호고속과 경북고속이 함께 운행하는 목포~동대구~구미 노선은 우등버스(28석)를 투입해 하루 2회 왕복한다. 요금과 소요시간은 목포~동대구 2만1700원에 4시간10분, 목포~구미는 2만4400원에 5시간 걸린다. 목포 출발시간은 오전 9시40분과 오후 4시30분이며, 구미 출발시간은 오전 8시10분, 오후 4시30분이다. 내년 4월 예정된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소요시간은 약 1시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lman brand waterproofing products, featuring '칠만표 방수제' and '칠만표 방수제'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Oknwood furniture, showcasing various wooden furniture pieces like sofas and bed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branches.